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영민 목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사랑과 헌신 (창세기 22: 1-12)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 25



“믿음의 삶을 살라” (열왕기상 18:41-46)

엘리아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비가 올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한 시종에게 바다쪽을 살펴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알아보라고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보냅니다. 그러할 때 시종은 엘리아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아가 아무런 변화, 기미가 없다고 하는데 일곱 번이나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기에 비가 올 징조가 있으리라 믿고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없는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길들여진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에 종속되어지면 부정적이 됩니다. 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긴다, 어렵다, 낙담, 원망, 불평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사는 자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이, 형편이 되지 않고, 전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내 이해를,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뛰어 넘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살려면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포기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따지고 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니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 시간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큰 비가 내립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에, 교회에 눈에 보이는데 안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시) 를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면 예배** -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행정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발열 체크등 준수하여 주십시오. 예배 후 모임과 식사는 없습니다.
4. **성찬식** -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토요새벽예배** - 토요새벽 예배가 대면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카톡 라이브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6. **헌화** - 5월부터 강단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붙어있는 헌화자 명단에 원하시는 주일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부장 모임** - 5월 9일 주일오후 12시에 부장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5/02	5/09	5/16	5/23
대표기도	유영민	심영민	김영란	윤완선
헌화성도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2,078.53	

행사 및 모임

4 월	부활절예배	4 월 4 일 (주일)
5 월	어버이주일 행사	5 월 9 일 (주일)

독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동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나순규 (Indonesia)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동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지난 일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학교, 비즈니스, 가게를 닫아야 했고 더 나아가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상도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정신적,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일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 50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감염자들,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는 백신을 공급받지 못해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분명 코로나 사태가 많은 부분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지만 영적인 면에서, 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으로 본다면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준비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있음도 깨닫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코로나 1년간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회개함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누군가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홀로 있는 시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아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시간으로 삼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시간, 같은 어려움, 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 시간과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 들이고,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더 마르고, 더 고통스럽고, 더 불행하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되는 시간과 일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코로나 사태가 불행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었든지,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준비케 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보면 너무나 힘겨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면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가뭄을 통해 식물은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우고, 거센 비바람은 더 넓게 뿌리를 뻗도록 나무를 자극합니다. 고통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진 시련의 바람을 견디고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헌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등지목장:이화선목자	샬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